이렇게 들었다

나라사랑

화합 단결 善 북돋고 국토 잘 보호

호국보훈의 달 6월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마다 불교는 호국의 이념을 드높이며, 이땅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선봉에 서왔다. 임진왜란당시 의병을 이끌며 전장에 나섰던 사명대사에서부터 일제시절 강인한 정신과 불교사상으로 독립을 이끌었던 만해스님, 6·25전쟁때 파괴될뻔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장지량 전 공군참모총장에 이르기까지, 나라사랑의 정신이 없었다면 감히 해낼수 없었던 일들을 이뤄냈던 것이다. 또한 나라사랑의 일념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부처님 말씀을 통해 나라사랑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어떤 사람이 불손하게 왕명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해치거나 그 행동이 국법을 어겼다면, 먼저 좋은 말로써 설득하고 가르치라. 반역을 버리고 순종한다면, 왕은 반드시 자비로써 용서하고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방하지 마라. 이와같이 해도 뉘우침이 없다면 그때가서 나라밖으로 내보내라. 〈화엄경 입법계품〉

▨만일 어떤 왕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왕의 국토안에 많은 안락이 있게 되기를 원하거든 국토안에 사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쾌락을 성취하게 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밖의 모든 적들을 항복시켜 온 국토를 잘 보존하고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원하거든 중생들의 공포를 없애주어야 한다. 〈금광명경〉

▨재물을 널리 베풀어 주는 덕과 신명(身命)을 버리면서도 헛되지 않고, 대용맹을 갖추어 원적(怨敵)을 제어할 수 있는 3덕만 갖추어도 치국할 수 있다. 〈화엄경〉

▨나라를 세우는 기초로 다섯가지 공포(恐怖)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임금이 순박해서 조심성이 있고, 과세기준이 평등해서 국왕에 의한 수탈의 공포가 없는 것, 군인은 충절이 있고 현명하여 욕심내지 않는 것을 신조로 하되 왕의 측근이 협박한다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관리가 그 직분을 지키고 은혜와 관용의 정신으로 충만해 있어서 혹사로 고통받는다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각자 모두 도리를 지켜 겸양하므로 나라에 왜곡된 일이 없어 도적의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평화로와 교류가 잘 이루어지므로 침략의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즉 수탈 협박 혹사 도적 침략의 공포가 있으면 국민들은 불안해 한다. 〈화엄경〉

▨3종업륜(三種業輪)이란 군인들에게 전투의 기능을 잘 가르쳐 외침과 내란을 항복받아 인연들을 포육(抱育)하는 것이고, 집짓고 농사짓는 일을 국민들에게 잘 가르쳐 주식(住食)을 충족케 하는 것이며, 종업과 상업을 인민들에게 잘 가르쳐 여러가지 도구와 재물을 뜻대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승대집지장십륜경〉

▨5종대사(五種大事)는 만민을 영도함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되고 장군과 사병을 잘 양육하여 지위를 주고, 본업을 잘 닦아 복덕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충신들의 간언을 잘 받아들여 정직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탐욕과 즐거움을 절제하여 방일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법구성전경〉

▨만약 국왕과 백성들이 모두 일곱가지의 법을 잘 지킨다면 설령 천하의 군사가 모두 공격한다 하더라도 멸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반니원경〉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의 진리를 믿으면 국민들이 즐거움을 얻고, 위 아래가 화합하고 단결해서 선을 북돋고 덕을 쌓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할 것이니 일기까지도 순응케 할 수 있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사찰여름수련회 여는 까닭

제 언

경성스님
해인사 포교국장

단기간의 출가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슴에는 보리의 씨앗을 심고 성불의 열매를 기약하고자 하는 뜻깊은 사찰 여름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참가생을 받고 있다. 새로운 휴가모습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찰수련회에 동참하며 스님들의 무소유정신과 무욕의 삶을 익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수련법회를 개최하는 사찰마다의 특성이나 일정을 잘 살펴서 자신의 수행력이나 발원에 부합하는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의미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수련회 기간동안 수련생들은 산사에서 수행하는 스님들과 똑같은 일정으로 예불과 참선, 공양을 경험한다. 또한 큰 스님들의 특강도 경청하여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기까지 극기의 과정을, 짧은 기간이지만 스스로 느끼고 성불의 인연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소모적이고 경쟁적인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불교의 수행법을 스님들로부터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수련법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묵언과 차수(叉手)하는 마음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현대인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남의 말을 잘 귀담아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수련회는 이러한 잡담으로 인한 정신의 산란함을 막아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게하는 묵언과 차수, 하심을 강조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가늠하여 커다란 도약의 발판으로 여름을 보낸다면 21세기를 준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선각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계종 새 청사 건립에 부쳐

제 언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

요즘 조계사에 드나들다 보면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새롭게 짓는다는 청사진을 볼 수 있다. 너무도 반가운 일이다. 구 건물을 헐고 새 청사를 짓는 것은 많은 불교도들이 바라는 바이다. 다음 몇가지를 건의하고 싶다.

첫째,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얼굴이며 시민포교의 1번지이다. 총무원 건물보다도 시민의 광장이 될 종합불교회관이 어쩌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시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목적이 중생제도에 있을진데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큰 불교회관 하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100~200년 밖에 안되는 기독교는 백주년기념관, 여전도회관, 2000년회관 등 매머드급 회관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불교는 시민을 위한 전문 세미나장 하나없이 매번 조계사 주변을 맴돌고 있고 또한 국제화 시대에 외국 귀빈들을 초청할 수 있는 불교전문 행사장 역시 없다. 불교의 크고 작은 신행단체가 공간이 없어 조계사 주변을 전전긍긍 맴돌고 있다. 총무원 청사와 별도로 불교회관을 현대에 맞게 고층으로 설계하여 청사진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조계사에 지상 주차장을 존속시켜서는 안된다. 조계사는 성지화해야 한다. 현재 주차장화되어 있는 조계사에 외국관광객들이 매일 참배하는데 부끄러운 일이다. 조계사는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땅이 많이 확보되었다. 이번 총무원청사 설계계획에 지하주차장을 넓게 최대한 확보하여야 된다. 모든 차량은 지하로, 지상은 시민의 휴식처와 불교구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시로부터 도시재개발 허가를 받아 조계사를 중심으로 재개발해야 한다. 조계사가 땅을 많이 확보했지만 일부 옛 도시 계획도로가 그대로 나 있고 주변 개인주택들이 있어 향후 조계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계사가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 개발해야 불교의 1번지답게 불교타운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듯 넓은 땅이 확보되었으니 조계사와 총무원, 그리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합불교회관 등 2000년을 맞는 불교타운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목탁소리

도필선 〈취재1부 기자〉

민족의 영원한 등불로 빛나고 있는 만해 한용운 스님. 올해는 만해스님 탄생 120주년(8월29일)이자 열반 55주년(6월29일)인 뜻깊은 해이다. 이를 계기로 만해스님의 출가사찰이자 〈님의 침묵〉의 산실인 백담사가 8월 만해축전을 준비하고 있어 불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 조국광복과 독립을 이룩하자'는 만해스님의 뜻을 받들어 1920년 창립된 대한불교청년회는 기념문화행사는 커녕 추모법회조차 계획하고 있지 않아 실망을 주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만해스님의 정신을 청년불자들이 이어가자는 취지로 결성된 청년조직이다.

전국 16개 지구(직할 포함), 30여만명의 회원을 거느렸다는 '한국불교 최대 청년조직'임을 자랑하는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가 이달 29일이 만해스님 기일인데도 추모재 하나 없이 손놓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해백일장, 만해불교대학 등 무슨 일에나 '만해'라는 명칭을 붙여 개최하곤 했던 대불청이 열반기일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추모법회조차 없다니

물론 대불청이 만해스님의 기념일을 맞고서도 변변한 행사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데는 속사정이 나름대로 있긴 하다. 지난해 '회장 불신임'으로 불거져 나온 내부갈등과 조계종사태 때 종정교시봉행 성명서를 발표해 조직의 권위가 실추되는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으면서 중앙사무국의 업무가 몇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힘든 상황일수록 만해스님의 정신으로 하나로 뭉쳐야 하는게 '대불청의 자존심'이 아닐까. 조계종 사태가 끝난 지도 어느덧 반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 따라서 지금의 어려움을 '외환'으로 돌리기에는 논리가 빈약하다.

불교계 최대 청년조직 대불청이 만해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재가불교, 지성불교의 첨병이 되어줄 것을 교계는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다.

만해스님 탄신 120주년, 열반 55주년을 계기로 대불청이 빠른 시일내에 내부문제를 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나 만해스님의 후예로 부끄럽지 않은 단체가 되길 바란다.

(psdo@buddhapia.com)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사찰도서실 만들면 불자 신심함양 도움

사찰도서실은 정보화시대에 불교교육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불교의 기초교리에서부터 전문적인 경전연구, 여기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양도서까지 두루 갖춘 사찰도서실은 그 자체가 불자들에게 신심을 북돋워 준다. 이제는 법당에서만 불법을 배운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법당을 비롯 도서실과 같은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런점에서 현대불교신문사가 펼치고 있는 '사찰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싶다.

불자라면 가정에 한두권 정도의 불서가 있을 것이다. 나도 그렇지만 이런 책들은 대부분 잠자고 있다.

이제부터 잠자는 불서를 깨워 사찰로 보내자. 한사찰에 1백명이 마음을 낸다면 작은 문고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이 동참한다면 작은 도서실도 꾸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불자들이 동참하면 각 사찰마다 도서실을 설립하는 것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울 것이다. 김장근〈강원도 원주시〉

사찰 소개책자 비치 관광객 포교 했으면

지난 일요일 우리 가족은 충남에 있는 ㅂ사에 갔다. 꽤 유명한 절이었는데 그 사찰의 연혁과 문화재 등을 소개하는 팜플렛이 있을까 해서 물어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해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요새는 사찰이나 문화재에 대한 답사책도 많이 나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찰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사찰안내 팜플렛이 꼭 비치돼 있었으면 한다. 단순히 소장돼 있는 문화재 소개만이 아니라 불교적인 의미, 예를 들면 사천왕상은 왜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문가에 서 있는지 등 사찰에 깃든 불교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소개서가 있었으면 포교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다. 사찰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경내에 간이 의자 같은 것을 놓아 쉴수 있게 해 주는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이명은〈서울 광진구 중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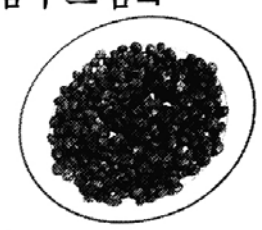
법보시 '현대불교' 보며 지난날 과오 깊이 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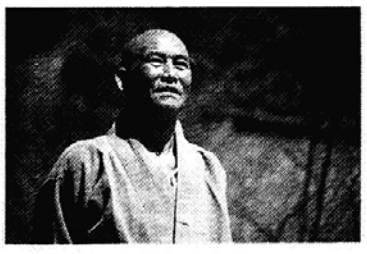
청송 제2 감호소에 있는 저희 불자들은 현대불교신문 오는 날을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있으며 그동안의 무지에서 벗어나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해 신앙심과 영적인 성숙함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그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부처님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으니 이곳 불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의 법보시로 불교사전도 잘 받았는데 불교사전은 불교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남궁경〈경북 청송〉

통일생각

김성우〈서울 종로구 팔판동〉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법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檀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궈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5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바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동문스님과 함께
새 천년을 여는 석림

모시는 글

귀의 삼보 하옵고,
각계 각분야에서 원력과 정진으로 석림의 이름을 빛내고 계시는 동문 스님들께 저희 후배들은 항상 깊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석림회는 하계수련회에서 「새 천년을 여는 석림」이란 주제로 동문 스님들을 모시고 화합의 마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 천년을 여는 즈음에서 석림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선배 스님들의 통찰어린 의견을 듣고 앞으로 석림의 나아갈 방향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저희 후배들의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제 : 새 천년을 여는 석림
⊙ 일 시 : 1999년 6월22일, 화요일(음력5월9일)
⊙ 시 간 : 오후 5시 저녁공양부터 오후8시까지
⊙ 장 소 : 화계사 법당
⊙ 연락처 : 백상원 02)902-2745
해광사 02)396-8066
담당자 017-204-9963

동국대학교 석림회
회장 재안 합장

철야 참선정진 법회

복잡한 현대생활의 피로를 벗고
자기 마음을
찾아 보지 않으시렵니까?

●일 시 : 매월 2번째 4번째
토요일 밤9시 - 일요일 05:00까지
●입회비 : 만원 (단 불교신자에 한합니다.)

참선에 관심있는
불자님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본사 화엄사 포교당
좋은절 선재정사
(전철3호선 구파발 삼송리역 농협대학 건너편)
전화 0344)962-6690 / 팩스 0344)967-1705